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mailto: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90호

2026년 3월 1일(가해)

<p>미사 안내</p>	<p>평일</p>	<p>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p>	<p>주일</p>	<p>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amp;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p>
<p>연령회</p>		<p>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p>		



## 오늘의 미사

## 사순 제2주일

<p>▶ 1독서 : 창세기 12,1-4ㄴ</p> <p>▶ 화답송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p> <p>▶ 2독서 : 티모테오 2서 1,8ㄴ-10</p>	<p>▶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p> <p>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p> <p>▶ 복음 : 마태 17,1-9</p>
--	---

성가 ▶ 입 당: 116 ▶ 봉헌: 513, 511 ▶ 성체: 180 ▶ 파견: 119

① 3월 15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② 3월 15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③ 3월 봉성체 안내

3월 봉성체는 3월 19일(목, 오전) 서쪽 지역, 3월 20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④ 3월 성체강복은 3월 5일(목) 오후 7시 미사 중에 있습니다.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3월 15일~21일)

⑥ 매월 넷째 주 3월 22일(일) '한끼 나눔'



사목공지



사목위원회

※ 교육분과 교리교육 공지

- 예비자 교리 / 견진 교리: 3/1, 3/8, 3/15, 3/22 (총 4회)

견진교리는 가톨릭에서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고, 성령의 7가지 은사 (성령칠은: 슬기,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통해 신앙을 굳건히 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교회의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결합하는 영적 성년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 시간: 매주(주일) 오전 9시 /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구역 및 단체

① 사목평의회 모임

일시: 3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교리실

②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3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③ 펠시티 구역 모임

일시: 3월 1일(일) 오후 5시  
문의: 김사비나 721-1055

④ 가이무키 구역 모임

일시: 3월 8일(일) 오후 5시  
문의: 황마리아 220-0822

⑤ 쉘렉 구역 모임

일시: 3월 10일(화) 오후 3:30  
문의: 이명노 비오 227-5630

⑥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3월 21일(토) 오후 5:30  
문의: 김아가다 907-570-2034

※ 사순기간 중 교중미사 시작 1시간 전 (토요일 4시미사 시작 30분전, 새벽미사는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 담당 분과 단체 (준비물: 기도서)

3월 1일(일)	사순 제 2주일	명도회
3월 8일(일)	사순 제 3주일	시설분과
3월 15일(일)	사순 제 4주일	청소년분과
3월 22일(일)	사순 제 5주일	홍보분과
3월 29일(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교육분과
4월 3일(금)	성 금요일 (오후 6시)	선교분과

기타공지

■ 故 강기중 베드로 형제님 1주기 추모 연도 안내

시간: 3월 1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성당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유카타리나 자매님

※ 사무실 공지사항

50주년 기념 책자를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구당 1권)



헌금

3월 14/15일 Catholic Relief Services 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월 21/22일: \$7,573 (한끼나눔 제외)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47명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한끼나눔		
	\$3,720	\$2,745	\$1,108	\$2,246		

<b>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b>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흥 프란치스코 / 836-5887	<b>뷰티터치 (BEAUTY TOUCH)</b>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b>New York Life</b>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b>Ginzawon (긴자원)</b>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b>묘지매매</b>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말씀 전례(3) 말씀 전례의 의미

말씀 전례에서 성경 봉독은 언제나 독서대에서 선포됩니다(미사경본 총지침 58항). 전통에 따라 성경 독서의 임무는 주례자가 아닌 교회로부터 독서직을 받은 자가 읽습니다. 하지만 알맞은 독서자가 없을 경우, 주례 사제 자신이 복음 선포와 더불어 다른 독서들도 선포(미사경본 총지침 59항)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말씀 전례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느님 말씀과 주님의 성체와 함께 거룩한 전례 안에서 모든 교우들은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양육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따라 미사 경본 총지침 29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봉독될 때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전례의 중요한 요소인 하느님 말씀을 봉독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성경 봉독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므로 누구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례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 있는 풀이인 강론으로 말씀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여 더 큰 효과를 얻게 해야 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이 봉독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편 채 눈으로 읽거나, 공동 독서의 의미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들음으로써 깨달으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미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성경 교육을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일치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말씀 전례에 성경을 봉독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도록 하는 봉사자를 “독서자”라고 합니다. 독서자는 복음을 제외한 성경을 선포하는 직무를 받으며, 성경 봉독을 할 독서자는 참된 자질을 가지고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독서할 수 있는 자격으로 독서직이라는 직위를 줍니다. 독서직을 받은 사람은 말씀 전례에서 사제를 도와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본당에는 독서직을 받은 봉사자가 없으므로 사목구 주임의 판단에 따라, 평신도가 성경 봉독을 수행할 임무를 도울 수 있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01항). 그렇기에 독서자는 미사 집전 중에 고유한 직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봉독의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아봅시다

## ※ 사순 제2주일 강론 요약

오늘 전례 말씀은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하여 바오로 사도의 권고를 거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은 공통된 주제를 전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람에게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 명령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안전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아브람은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움직이는 계산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임을 보여 줍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약속하시며,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선택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동시에 세상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화답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느님의 자애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위로와 축복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느님의 힘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며,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어 생명과 불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십자가가 있더라도 그 끝은 영광입니다.

복음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이 진리를 미리 보여 줍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앙의 핵심은 특별한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앞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떠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다시 일어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빛을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b>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b>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b>최 니콜 부동산</b>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b>메디케어 보험</b>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b>광고 문의</b> 사무실 808-422-1010	<b>A'ALA Meat &amp; Seafood Inc</b>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b>보나 최 부동산</b>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